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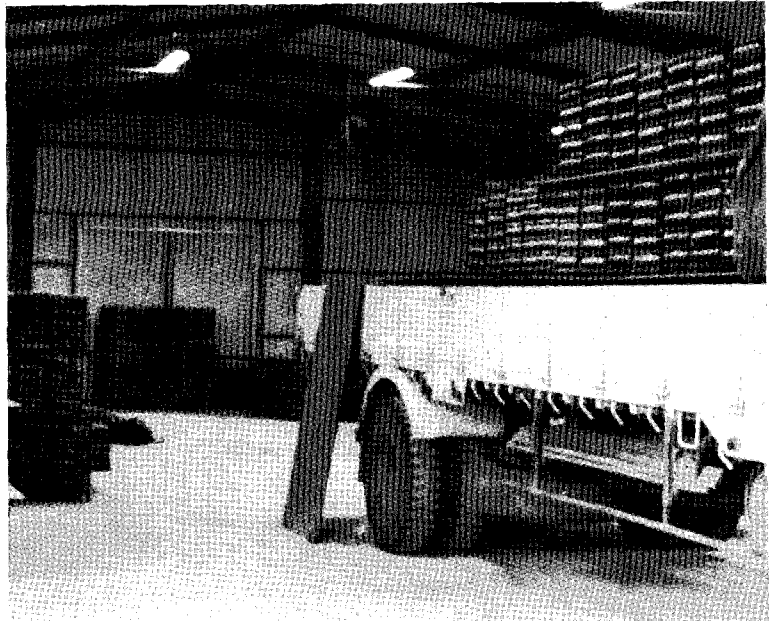
# 꿈틀 거리는 전남 계란

**전**라남도 채란양계산업은 광주권과 목포권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목포, 무안, 영암, 강진, 해남이 목포권에 속하며, 이외의 지역이 광주권으로 분류된다.

광주권에서는 1백40여만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목포권에서는 70여만수가 사육되고 있다. 농가당 사육규모는 대부분 1~2만수 규모이며, 대군사육자로 불리는 3만수 규모는 10명 정도이다.

## 광주, 목포권으로 분리 운영

광주권은 나주, 화순 등 북부 지역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다. 반면 남부 여수, 순천지역은 채란계 사육이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광주권은 생산과 소비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 외부와 고정 거래가 없이 지역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부 전라북도에 가까운 몇몇 농가는 전북상인에게 판매를 함으로



써 일부 물량이 전북으로 직접 반출되고 있다.

계란가격은 양계협회 전남지부에서 조절하고 있으며, 광주권 전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협회에서 조절한 계란가격은 생산자

는 물론 상인들도 이를 준수하려고 있어 계란거래과정에서의 문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간혹 덤핑을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고의로 부도를 내는 상인이

■ 취재/권동원기자

있기는 하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협회 차원에서 상인을 불러이의 시정을 유도하고, 때로는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 고기판매 어려워져

요즘 광주권은 정상적인 난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그동안 고난가를 유지하여 왔던 광주권이 1년여 전부터 상황이 바뀌고 있다. 최근 계란생산이 급격히 증가한 전라북도와의 인접하고 있어 항상 전북계란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더구나 목포권이 전북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지부 윤석현 상무는 “과거에는 광주권 난가가 높게 형성되어 왔으나 이제는 조금만 틈을 보여도 전주, 목포, 대구 등에서 계란이 반입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난가 정책에서 탈피하여 외지와의 경쟁을 위한 저난가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 영세한 도매상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매상은 5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반 도매상은 하루에 2~5백판을 취급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상인이 하루 1천5백판을 취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매상 마진은 개당 2~3원으



로 운임 등 제경비를 제하고 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양란, 자연란, 위생란 등 상품화된 계란이 증가, 기존 도매상의 영역을 침투하고 있다.

광주 등 도시에서의 상품란은 전체물량의 30% 정도 점유하고 있다. 상품란은 대리점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 기존 도매상은 시장을 빼앗기며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상품란은 개당 10원 정도의 마진으로 일반란 취급시보다 이윤이 높아 기존 도매상도 상품란의 취급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 목포권 독립적 난가체제

목포권은 1시4군으로 구성된 작은 권역이다. 그러나 계란가격은 본회 전남지부 목포지부에서

조절한 독립적인 난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권을 확보하고 있다.

목포 이외에 뚜렷한 소비처가 없어 생산이 소비를 앞지르고 있다. 생산과잉으로 일정물량을 고정적으로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란가격은 비교적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 지역 채란양계산업은 목포양계협동조합을 핵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4년 공동집하장을 운영하면서 시작된 조합은 90년 2월 정식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내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집하장 업무를 시작하였다.

### 목포양계조합이 상권 장악

목포권 채란양계농가 70~80%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1일 7천판을 취급하고 있

다.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한 계란은 집하장을 거쳐 도매상에게 판매한다. 또 일부는 수도권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목포의 도매상은 하루 3백판 이상을 처리하면 대상인으로 분류되며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중도매상은 하루 몇십판을 처리하고 있다. 도매상들은 지역특성상 항상 일정량을 외지로 반출해야 함에도 조합에서 D.C없는 고시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 위축되고 있는 도매상

목포 최고 대상인 목포계란유통 김성복 사장은 “조합이 상권을 장악한 이후 도매상들이 위축되고 있다. 어느 정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

다. 현재 조건으로는 이윤이 너무 박해 향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김사장은 조합과의 거래를 위주로 하기 어려워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비조합원 농가와 거래를 할 경우 조합에서 가져오는 것 보다 2원을 낮게 집란할 수 있어 4원 마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좁은 지역내에서 2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계란이 함께 유통됨으로써 유통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계란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과 소매차(세일차)를 통해서 소비되고 있다. 소매차는 주로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판매하고 있으며, 1일 50판 정도 판매로 판당

300~500원의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나 소매차는 여름 수박철이나 가을 김장철 등에는 이윤이 낮은 계란을 취급하지 않으며, 계란가격 하락시에 집중적으로 판매된다.

### 생산증가 예상

전라남도 채란양계산업은 제반여건으로 보아 앞으로는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지금은 전남계란이 주로 전북상인에게 넘겨져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조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계조합의 영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집하장이 추가로 개설될 경우 전라남도는 계란 생산기지로 부상하여 우리나라 계란유통질서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리라 전망된다. **양계**

### 목포양계협동조합



△김재균 조합장

목포양계협동조합은 계란가격이 하락세에 있을 때는 상인들이 1주일도 넘도록 집란하지 않은 등 횡포가 자행되던 84년 11월 유통질서를 잡기 위해 협회 회원 27명이 공동집하장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공동집하장을 운영하면서 88년 여름 불황기 때에는 체화된 계란으로 난유를 만들어 파는 등 계속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88년 말부터 양계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89년 5월 창립총회를 갖고, 90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목포양계협동조합 조합원은 산란계 62명(51만8천수), 육계 31명(34만5천수), 삼계 26명(52만4천수)로 총 119명이다. 현재 하루 7천판을 수집, 판매하고 있으며, 시간당 2만개를 처리하는 GP기를 설치한 집하장을 건립 중에 있다.

한편 전남양계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어 조합 영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키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